

“선관위원이 특정후보 지지”... 시당위원장 경선 부작용 속출

민주 광주시당, 양부남·강위원 후보, 원내·원의 인사 경쟁 치열 임시의장·선관위원 2명 자격 박탈... 선거 후에도 갈등·불화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를 보낸 선관위원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심판을 받아 할 선관위원들이 경기에 직접 뛰어들어 선이다.

특히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광주 전당대회 임시의장직을 맡아야 할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도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의장 명의로 보내면서 임시의장직을 맡지 못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또 전당대회 식순에 포함된 시의회 의장 인사발도 다

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시당위원장 경선을 위한 선관위원 7명 중 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광주시당 선관위는 지역 기초의회 추천 5명, 외부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기초의회에서 추천된 기초의원 2명이 최근 양부남(서구) 시당 위원장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해임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새 선관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5명의 위원으로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또 선거 진행과 감시를 위해 선임된 선관위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 선거 이후에도 이의 제기 등 불화가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는 현역인 양부남 국회의원과 원내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맞붙었다. 현역 의원과 원내 인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방의원 줄 서기’ ‘후보 간 흡집 내기’ 등이 난무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당위원장 후보의 눈치를 보며,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현 시·구의원들이 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수정 의장이 양부남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내 ‘의장 명의로 문자를 보내면 의회 전체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동료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당도 신 의장의 행위가 시당위원장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신 의장의 광주 전당대회 임시의장직을 취소했다.

애초 전당대회 임시의장은 관례대로 전임 시의장 몫이었는데, 정무창 전 의장의 개인 사정으로 신 의장이 맡아야 하지만 이번 문자 논란으로 전당대회장에서 끝내 마이크를 잡지 못하게 됐다.

대신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반면, 같은 날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남도당의 경우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이에 신 의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지역 전당대회에서 인사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시의회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앞서 지역 한 당원이 신 의장을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지만 기각됐다. 윤리심판원은 시당위원장 선거가 공직선거가 아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병훈 시당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선거가 더 과열되는 것 같다.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마지막까지 선거를 관리하겠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광주시민들로부터 민주당, 이 정당밖에 안 되나”라는 비판을 들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혜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홍혜민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진숙 방통통신위원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의도 브리핑

조인철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시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랙카자’ (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 영상 또는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랙카 유튜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랙카 유튜브 연합이 유튜브 ‘썩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감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들은 현재 검찰,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가 명예훼손 등 형



으로 기소됐다. 해당 유튜브는 비방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 간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진숙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일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쓴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액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제를 명확하게 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나아가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전진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지원한 건수는 약 백만 건”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약 백만 건에 달하는 삭제지원 비용을 성범죄자 대신 지출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온 김두관 “역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민주 전대 주말 호남대회 앞 지지 호소... “尹 퇴진 위해 연대해야”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후보는 1일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는 김대중 선생님의 말씀이 요즘처럼 중요하게 다가온 적도 없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던 지난 2년은 내부 단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부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이재명 독주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를 호위하는 소수 경쟁 개혁의 딸”들이 자기와 조금만 입장이 달라도 문자 폭탄, 수박 깨기, 탈당 요구 등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총선 공천에서 나타난 ‘친명형제, 비명형사’의 참상도 당내 단결을 깨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로 인해 민주당은 외연 확대에도 실패하고 있다”며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로 총선에서 협력했던 조국혁신당과 연대가 아니라 경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과 정권 전환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대화와 토론이 있는가. 우리는 정치 소멸과 정치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저 김두관이 아니라 민주당을 살려달라.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김대중 정신을 되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북, 4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다. 이어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에서 당원대회를 열고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